

낙농단상(酪農斷想)

홍 원 목 장
사 장 신 덕 현

○ 낙농이 뭐길래...

몇년전에 한 노신사가 우리 목장을 찾아 오셨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무언가 다르다 싶어 여쭙보니, 당신의 서울우유조합 조합원번호가 3번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어림잡아 50년 이상을 젖소와 함께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요?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었다. 그러시면서도 년수만 많다뿐이지 이뉘 논게 없다시며 겸손해 하셨다. 그러나 50년 이상을 낙농만 해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낙농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씀드렸다. 도대체 무엇이 그분을 이 힘든 낙농에 50년이상 묶어 놓았을까? 낙농에 무엇이 있기에...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륜이지만, 때때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칠때면 정말 해먹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푸념을 하면서도, 그래도 무슨힘엔가 끌려 극복해 나가고, 다시 새로운 목표에 도전해보고, 뭔가 일이 잘 풀려나갈때는 그래도 낙농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나를 끌어들이는 낙농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무래도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낙농의 정직성일 것이다. 그야말로 「심은대로 걷우리라」는 귀절이 딱 들어맞는 직업이 낙농이 아닐까? 게다가 다른 농산물처럼 농사는 잘 지어놓고도 가격폭락으로 망할 염려도 없다.

또한 일의 다양성에서도 타 업종의 추종을 불

허한다. 문자 그대로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힘들면서도 또 다른편에서는 일에 재미를 붙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은 우리가 생산하는 우유라는 액체 자체에 있는 것 같다. 비단 우유가 인류 최고의 완전식품 이래서만은 아니다. 도대체가 젖소란 짐승은 풀을 먹고(물론 더 많은 것을 짜내기 위해 농후사료도 먹이지만) 한편으로는 우유를 생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분뇨를 배출한다. 이 분뇨는 다시 풀밭에 가서 풀을 키우는데, 이풀이 거름에다가 자연이 주는 물, 공기, 햇빛을 더하여 성장한다. 다시 젖소는 이 풀을 먹고 우유와 분뇨를 생산하고...

이 끊임없는 순환 고리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유=물+공기+햇빛이라는 공식이 나온다. 결국 우리는 젖소를 이용하여, 물과 공기, 그리고 햇빛을 가지고 우유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당연히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자연인 물, 공기, 햇빛을 마시는 셈이니 어찌 건강과 활력이 넘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조화가 신기하기만 하다. 그래서 그랬나? R.D.Appleman이 쓴 『낙농가 그는 누구인가? (What is a Dairyman?)』라는 문장의 한 구절이 새삼스레 생각난다. 『낙농가란 전화기와는 가장 멀리 있지만,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 분통 터진일 세가지

낙농을 하면서 속상하는 일이 어디 한두가지 일까만은 특히 어느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이 낙농기반을 허물지도 모르는 터무니없는 말, 또는 행동을 할때면 속상하다 못해 분통을 터뜨리게 된다.

- 하나, [1,000원어치의 경제학]

1985년부터 2~3년간 우리 낙농비육업계는 유래없는 불황에 시달려야 했다. 그것은 83~84 2년간 계속된 유사 이래의 호황에 대한 반등이기는 했으나, 그것을 부채질한 것은 당시 한 실력자의 과욕으로 인한 무분별한 소 수입이었다. 덕분에 150만원에 산 송아지가 2년뒤 큰소가 됐을 때는 100만원도 못하는 비극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자살하는 농부가 생겨나기도 했었다. 그위에 기름까지 끼얹은 것은 공영방송 KBS의 캠페인 프로그램[1,000원어치의 경제학]이었다. 본디는 1984년 쇠고기 값이 폭등하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는데, 소값이 폭락하여 많은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본 1986년까지도 계속되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값만 비싸고 그 영양가는 별 볼일 없는 쇠고기를 먹는 소비자는 멍텅구리라는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농부가 자살까지 하는데 말이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방송국과 신문사에 항의성 투고를 수차했었는데, 그것이 그 프로그램의 방영 중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 둘, 시유(市乳)에 왜 고름?

역시 80년대 중반 어느해 여름, 이름 있는 일간지에 [시유에 고름]이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었다. 10년이상 낙농을 해오던 분이면 다 기억하시리라, 당시 경위를 살펴보면, 서울대 수의학과와 모 교수님이 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젖소의 유방염 감염 실태 및 예방 대책에 관해서 발표했는데, 국내 젖소의 절반이상이 유

방염에 감염되어 있고, 이로 인한 유질 저하와, 유량손실이 막대하므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특종에 눈먼 어떤 기자가 터무니 없는 오보를 한 것이다.

젖소가 유방염에 걸리면 체세포, 즉 고름이 생긴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 고름이 시유에 까지 그래도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몰상식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은 목장에서 걸러지고, 혹 가공공장에까지 간다해도 다시 2차 3차 먼지등과 함께 완벽하게 걸러진다는 것은 낙농가들이 모르는 일이다. 아마도 그 기자는 原乳와 市乳를 구분치 못해 저지른 실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낙농업계는 벌집을 쭈셔 논 듯했고 신문사에 왜곡 보도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신문사 측은 오히려 2탄, 3탄 낙농업의 치부름을 들춰내기엔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어느 분야든지 취약점은 있게 마련이다. 특히 영세낙농가들이 주축이던 당시의 낙농업계에 있어서야... 그 당시를 회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해짐을 금할 수 없다. 거둬된 낙농업계의 항의에 결국은 신문사 측이 굴복하고 말았으나 시원스런 사과나 해명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소비 위축의 조짐도 있었으나, 얼마 안 있어 소비가 정상으로 회복되 크게 안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오래전 일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이 지금도 매우 시사적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 낙농가들이 유질에 관하여 우리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이 언젠가는 우리 낙농의 장래를 크게 해치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언론이 어떤 분야에 대하여 고의든 아니든 왜곡된 시각을 가질때,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독자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분야의 기사에 대해서는 그 진실성을 평가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 셋, 국유초지 임대료가 평당 400원이라니... 우리는 지난 85년부터 약 5Ha의 국유지를 임대하여 초지로 개간 사용하고 있다. 매년 임대료를 지불해 왔는데 89년까지만 해도 평당 100원 미만으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던것이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지가가 상승, 90년에는 임대료가 자그만치 평당 400원대로 치솟았다. 인근 사유지 밭의 임대료가 평당 200~300원인 것과 견주면 분노에 앞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에 나는 농수산부와 언론기관에 다음과 같은 항의문을 보냈었다. 그러나 범조항만 내세우는 당국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 당년에는 그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내고 말았고, 그 대신 그 다음해부터는 다시 조절된 합리적인 임대료를 내고 있다.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조치라도 그 상대가 정부인 경우 그것을 바로 잡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절감한 사건이었다.

* 가장 어려운 손님

이 글을 쓰는 오늘은 원고 마감을 독촉하는 김주임의 심정은 아랑곳없이 지역의 무궁화 유치원에서 130여명의 유치원아가 견학을 다녀갔다. 덕분에 원고 제출 마감 시간을 또 어기게 됐다.

우리 목장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적지않은 사람들이 다녀간다. 가장 많기로는 우리 동료 낙농가들이고, 다음은 축산관계 공무원, 사료 회사의 낙농관계직원들 그리고 축산계 농고생, 대학생들이 주를 이룬다. 대개는 목장 현황이나 사양관리 시스템, 시설의 특징들을 우리 축산용어를 사용하여 얘기해 주고 질의 답변해주는 식이다.

때로는 수준 높은 내방객에게 땀을 흘리는 일도 있지만 늘상해오는 일이라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현장 아무데서나 해 오다가 지난 92년, 5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을 지은후, VTR, OHP, Slide Projector등을

갖춰 놓고, 그때 그때 알맞은 자료로 좀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견학이 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아무 소득도 없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뺏기는 일이지만, 낙농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까지 이곳을 다녀간 어떤 어른들보다도 상대하기 힘든 어린아이들이 다녀간 것이다. 나이래야 만 3세에서 5세까지 어찌보면 겨우 엄마 아빠나 찾을 아이들을 상대로 목장은 어떤 곳이며, 우유는 어떻게 해서 생산이 되는지, 왜 우유를 마시면 튼튼해지고, 예뻐지고, 똑똑해지는지를 알아듣게 설명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우사, 착유사, 착유시는 소집, 젓짜는 집 젓짜는 기계로 고쳐야 했고, 농후사료는 우리가 먹는 밥이요, 풀은 반찬으로 설명하면서, 소들은 밥보다 반찬이 더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야 했다. 그리고 젖소는 왜 젖을 만들어 내는가 라는 원아의 질문에, 그것은 너희들의 엄마가 너희를 낳아 기르면서 지금처럼 크게 키우느라고 젖을 만들어 먹였듯이, 젖소들도 송아지들 낳아 크게 키우기 위해 젖을 만들어 내는데, 그양이 송아지가 먹고 남아 우리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것이란 설명을 하면서 땀을 좀 흘려야 했다.

아무튼 내가 40년전, 국민학교 1학년때 당시 나의 고향이던 대천의 충남도립 종축장에 소풍가서 그곳의 젖소를 생전 처음보고, 나도 저 젖소들을 키워 보았으면, 했던 꿈을 지금 이루고 있듯이, 지금 이 아이들 중에서도 미래의 훌륭한 낙농가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아주 어릴때부터 젖소나 우유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 이 아이들의 평생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낙농의 발전에도 다소나마 일조를 하겠지 하는 심정으로, 아이들이 형편없이 짓밟아 놓고 간 풀밭을 보면서도 미소를 지어본다.

초지용 국유임야 임대료 인하에 관한 의견

지난 70~80년대를 통하여 정부는 낙농업을 육성하고, 산림을 자원화 하자는 의도하에 초지조성을 적극 권장하여, 많은 농가들이 국유림을 임대하고, 이곳에 막대한 노동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초지를 조성 여기서 생산된 풀 사료로 젖소의 생산성을 높이고, 배합사료의 사용량을 줄여 결과적으로 외화의 절약에 기여한 바 크다. 그런데 현행 산림법 시행 규칙상 이 초지용 국유림에 부과되는 임대료가 토지 감정가액의 1%로 되어있어, 과거 지가가 낮을 때는 별문제가 안되었으나, 최근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지역에서 地價가 급등, 그 임대료가 평당 400원을 웃도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 초지의 경우 그 주 생산품이 풀 사료로서 평당 생산물가액이 600원 미만인데다가, 임대료를 제외한 생산비가 500원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는 가격이고, 또 私有농경지의 경우 정부에서도 심각한 농촌문제 해결차원에서 낮은 임대료를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인력난등으로 인해 대부분 지역의 임대료가 하락, 농사 여건이 아주 좋은 밭에 있어서도 연간 임대료가 200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개간도 안된 국유림의 대부분이 그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당국은 임대료 부과근거가 되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62조를 현행 토지감정가액에 일정율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국유농경지의 경우처럼 생산된 농산물가액에 일정율을 부과하든가(이 경우 완전히 개간된 농경지의 경우가 20%이므로 초지의 경우는 10%미만이 되어야 할 것임)

지역내 私有농경지의 임대료에 연계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급히 개정해야 하며, 우선은 금년에 부과된 부당한 임대료를 합리적이고 형편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연락처 주소 :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해창리

전화 : 0339-52-5163

사장 : 신 덕 현

제10회 전일본홀스타인 공진회 참관 및 낙농시찰단모집

일본 홀스타인종 젖소의 개량도를 평가하고 낙농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개최되는 홀스타인 공진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아 래

- 방문예정일 : 1995. 11. 24~28(5일간)
- 공진회 개최일시 : 1995. 11. 23~26(4일간)
- 공진회 개최장소 : 일본 지바현 지바시
- 출품두수 : 10부 300두
- 목장견학 : 도시근교목장
- 연 락 처 :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개량부

(02) 588-9301~5

* 여행경비 : 참가인원수에 따라 추후통보

* 신청기간 : '95. 8. 30까지(현지숙박시설 관계로)